그들이 사는 세상,
그들이 돈 버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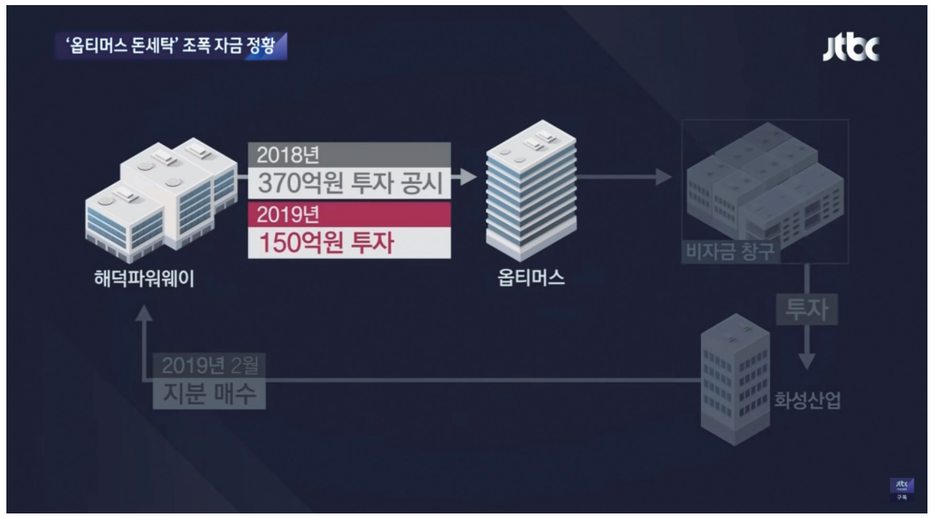
신아람 기자

재조명된 '사업가 납치 · 살해 사건' (JTBC뉴스 아침& 갈무리)

옵티머스 관계사 '해덕파워웨이' 추적기

사건의 전말을 촘촘히 알기까지 족히 1년이 걸렸다. 첫 취재는 '조직폭력배 사건' 에 대한 단순한 관심에서 시작됐다. 사회부 기자라면 한 번쯤은 조폭 취재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막연한 호기심. 과거와 같은 잔혹 범죄는 크게 줄었어도 다른 양상의 조폭–정장을 쫙 빼입은–들이 여전히 곳곳에 있으면서 지능범죄를 저지른다는 풍문을 얼핏 들어왔다.

지난해 1월1일, 조직폭력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이 살인 혐의로 지명수배됐다는 뉴스를 접했다. 이 세상에 조폭이 실제 있었구나 싶었다. 이후 조규석은 체포됐고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4월2일 오후 3시 10분, 의정부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쉬는 날이어서 여유롭게 법정으로 향했다. 첫 재판은 공소사실을 읊고 향후 재판 계획을 정하는 것으로 간단히 마무리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조규석이



한때 히든챔피언으로 주목받은 해덕은 옵티머스의 '돈 세탁소'로 지목됐다. (JTBC 뉴스룸 갈무리)

해덕 주주들을 지속적으로 접촉해 무자본 인수합병을 주가조작 의혹 취재로 넓혀갔다. (JTBC 뉴스룸 갈무리)

검거돼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이송될 당시 "이번 사건은 주가조작과 무자본 인수합병의 폐해"라고 취재진에게 말한 맥락을 몰랐다.

다시 '국제PJ파 부두목' 사건에 뛰어든 건 옵티머스 사건을 본격적으로 취재하기 시작한 그해 10월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투자처 중 한 곳이 조규석과 연관됐다는 걸 알게 됐다. 그 투자처는 선박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해덕)였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금 수백억 원이 돌고 돌았다. 알고 보니 기업사냥꾼들의 먹잇감이 된 업체였다. 해덕 실소유주가 바로 조규석 일당으로부터 숨진 사업가 박모 씨였다. 해덕 부회장으로 불린 박씨는 옵티머스 고문 명함을 들고 다니기도 했다. 반 년 전 법정에서 마주친 조규석의 변호인 등 관련자들을 찾아갔다.

해덕 관련 사건은 이미 검찰에 남아 있었다. 담당 부서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 인수자들끼리 경영권 다툼을 하다 2018년 8월 고소장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옵티머스 관련사인 해덕 사건을 조폭 담당 부서에서 쭉 맡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고소장 등에는 흥미로운 인물들이 줄줄 나왔다. 2000년대 초반 벌어진 '이용호 게이트' 사건의 이용호씨가 해덕 인수에 230억 원을 투자했다. 이씨는 이후 조규석의 재판과 해덕 '바지사장'으로 지목된 성형외과 의사 이모 씨의 사기 의혹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광주광역시 콜박스파 이OO, 전주 월드컵파 오OO 등 조폭들이 인수 자금을 댔다는 내용도 파악했다. 해덕 주주총회에 건달들이 동원되기도 했다. 이렇게 '옵티머스 돈세탁에 조폭자금 투입 정황…검찰 계좌추적', '[취재설명서] 옵티머스에 왜 '조폭'이 나와?'란 기사가 출고됐다.

이 사건을 한 줄로 요약하면 기업사냥꾼과 바지사장, 작전세력, 사채업자, 조직폭력배 등이 얽히고설킨, 영화보다 더한 실화다. 해덕에 37억 원을 투자했던 주주는 "끝이 안 좋아졌죠, 결국에. 자기들끼리의 경영권 싸움으로 인해 파국이 된 거지. 자기들끼리 아무 싸움이 없었다면 저는 세상이 다 모르고 지나간 인수합병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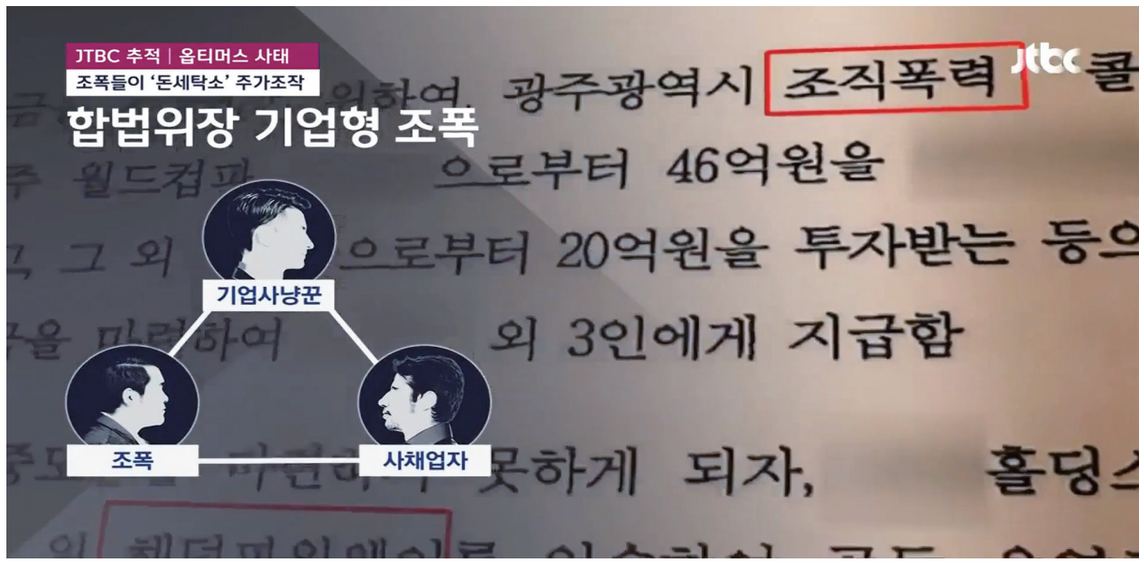
첫 보도 이후 제보가 왔다. 수감 중인 핵심 관계자의 가족에게서 온 이메일 한 통이었다. 연락을 이어가며 취재원들을 점차 넓혀갔다. 직접 통화하고 만난 이들만 수십 명이 넘는다. 이들 주장 중 사실을 가려내는 작업은 필수였다. 해덕 소액주주 대표가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사실을 확인해 '[단독] 옵티머스 대표, 돈세탁소 소액주주 대표와 짬짜미 … "수십 억 건네"'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해덕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용도로 로비성 돈이 오간 정황이 있다는 의혹도 출고했다. 이 과정에서 '뒤통수를

조심하라' 는 간담 서늘한 농담도 들었다.

그 뒤 무자본 인수합병에 대한 취재를 주가조작 의혹으로 넓혀갔다. '무자본 인수합병은 반드시 주가조작을 수반한다' 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사건을 공익 제보한 취재원들도, 추적해야 하는 관계자들도 대부분 관련 전과가 있는, 그 세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들이었다. 그들만의 세계는 분명 존재했다. 취재원들은 족집게 강의하듯 '그들이 돈 버는 법' 을 설명했다. 바이오 관련 계약을 했다는 호재성 정보로 주가를 띄운 뒤 없던 일로 하는 '치고 빠지기' 가 동원됐다.

해덕 사건은 '제3세대 조폭' 을 여실히 보여줬다. (JTBC 뉴스룸 갈무리)

방송 리포트로 전달하지 못한 이야기를 온라인 기사 '취재설명서' 로 풀어썼다. (JTBC 홈페이지 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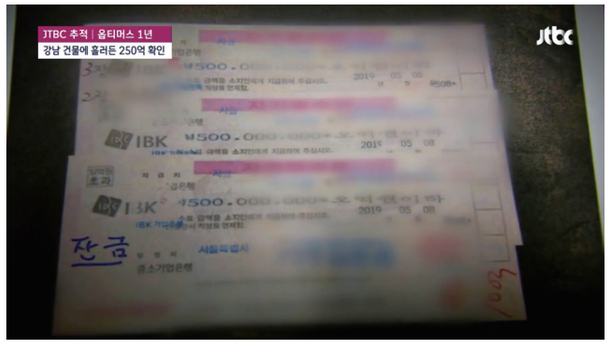


무자본 인수합병은 반드시 주가조작을 수반한다. (JTBC 뉴스룸 갈무리)

해덕 주식에 생각보다 많은 건달들의 돈이 들어갔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주주들을 계속 접촉했다. 주가조작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긴 A4용지 135쪽 분량의 녹취록과 음성파일도 확보했다. 이후 "[단독] 옵티머스 '돈세탁소' …조폭들이 주가조작 정황", "옵티머스 관계사 '주가조작' 정황…녹취엔 "내 지시만 기다려"" 기사를 내보냈다. 해덕 주식은 지난해 말 상장폐지됐다. 개미 1만 명의 700억 원대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위기인데, 해덕은 현재 사명을 바꾸고 재기를 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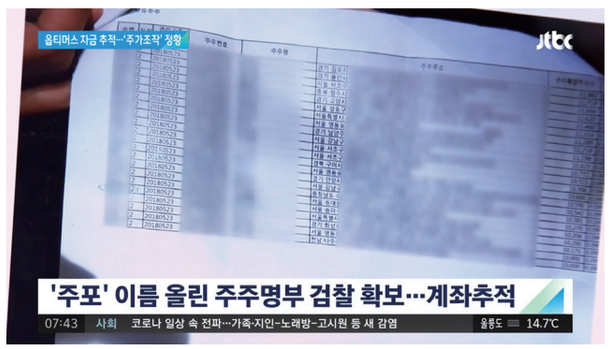
조폭과 기업사냥꾼, 사채업자가 결탁한 이른바 '제3세대 조폭' 은 소탕되지 않았다. 건재하다. 범행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들이 수감 생활을 하더라도 짧은 시간 쉽게 돈을 번 '그 맛' 을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조규석이 취재진에게 했던 말은 사실이었다. 조규석은 사건 당일인 2019년 5월19일 점심, 숨진 사업가 박씨 등과 함께 해덕 주식 거래를 의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덕 인수자금과 다른 회사 주식 투자금을 둘러싼 거래가 있었고, 약속대로 현금과 주식을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은 시작됐다. 조규석은 지난 3월 강도치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제3세대 조폭' 의 강점은 '복잡함' 이다. 번듯한 정장을 차려입고 관계사에 번갈아가며 적을 옮겼다. 자신을 숨기고 가족과 지인들을 끌어들였다. 취재 과정에서도 이들은 전화번호를 수시로 바꾸거



취재를 이어가다 옵티머스 돈이 서울 강남의 건물 인수에 들어간 사실도 확인했다. (JTBC 뉴스룸 갈무리)

해덕 주주들을 지속적으로 취재해 무자본 인수합병을 주가조작 의혹 취재로 넓혀갔다. (JTBC뉴스 아침& 갈무리)



해덕 주주명부를 일부 확보해 보도했다. (JTBC뉴스 아침& 갈무리)

나 착신정지를 하고, 다른 사건으로 수감되기도 했다. 마치 '이렇게 하면 못 쫓아오겠지' 라고 속삭이듯 얽히고설켜 범행을 이어갔다. 이 때문에 출발점이 다소 늦은 타사의 후속보도가 적었다. 자못 아쉽다. 핵심 인물인 사업가 박씨가 숨진 상태라 궁금증이 확실히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박씨는 2019년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로부터 74억 원을 받아 강남 건물을 사는 데 돈을 댄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옵티머스 사건과 범죄수익 환수 실마리가 더 쉽게 풀리지 않았을까 싶다. 옵티머스 사건이 터지기 전 금융당국과 검찰이 접수한 해덕 관련 진정·민원이 제때 조사됐더라면 하는 안타까움도 있다.

해덕 사건 자체만으로도 충분했다. 무자본 인수합병과 주가조작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대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옵티머스 사건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어찌 보면 '옵티머스' 라는 이름에 퍽 가려졌다고 생각한다. 옵티머스 취재는 정관계 로비 의혹을 담은 '펀드하자 치유문건' 에서 촉발됐다. 옵티머스에서 파생한 해덕 하나만을 조명하는 취재와 보도를 계속 이어가기는 사실상 쉽지 않았다. 그래도 보도의 큰 줄기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다행이다. 곧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

올해 상반기 화두는 돈이다. 코스피 지수 3200선 돌파, 부동산 투기 논란, 출렁이는 암호화폐…. '벼락거지' 로서 자본시장을 어지럽히는 작전세력들에게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 생각에 보도가 이어졌을지도 모른다.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그들이 사는 세상과 그들이 돈 버는 법을 지속적으로 취재·보도해야겠다.